전법 일기

수험생·부모님 간절한 기도 불보살님 가피로 이어지길

8월은 수능 백일기도 '입재 시즌'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간절하다.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나라가 또 있을까. 아이가 대학 갈 무렵에는 종교가 없던 어머니도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얼마 전에도 젊은 어머니가 고3 아이의 수능 기도를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묻고 간 적이 있다.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건강상 문제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을 때였다.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수행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은 건강보조식품 가게 원장님이 어느 날 내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원장님에게는 딸이 두 명 있는데 큰딸은 고3, 작은딸은 고1이라고 했다. 그런데 고3 딸이 뭔가 자꾸만 불안해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원장님에게 절에 가서 기초 교리반에 등록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분은 그렇게 해보겠다며 얼마 후 기본반에 입학했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딸도 밝아졌다고 했다. 오래전 내가 수능 기도할 때 주지 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수능 기도할 때는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엄마가 편안해져야 한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다. 기도하는 자가 불안하고 불편하면 그 파장이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간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다 8월이 되어 수능 기도를 시작했지만 업무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에 참석한다고 했다. 원장님 딸은 그해 수능을 본 뒤 대학 원서를 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 결국 가족회의 끝에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원장님은 이후 딸을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석불전에서 기도하고, 또 인연이 닿아 사찰 봉사도 시작했으며, 매주 부처님 전에 차 공양을 올린다고 했다. 그 표정은 매우 밝아보였다. 때로는 건강보조식품 가게 일도 오후로 미루면서 절에서 봉사에 참여하며 신심이 더욱 깊어진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 딸이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며, 너무니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 왔다. 이어 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무리없이 입학하게 되었다며, 부처님 가피에 감사하고 기뻐했다.

나 또한 보람되고 함께 기쁨을 느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신심 깊은 불자로 수행하고 있다. 무엇이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나는 매년 수능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찰에 수능 기도를 올리러 오는 젊은 부모님들을 보며, 그 자녀들이야말로 부모를 수행하게 이끄는 불보살님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니 자식이 부처님이요, 보살인 것을. 올해도 일주문 옆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⑱ 진각국사 혜심의 오도송

내 이웃이 본래 부처

불성의 신령스런 빛은 온 누리에 빛나고(靈光無外爍虛空)
무량한 공덕은 바로 이 몸 안에 있네(德過恒沙蘊箇中)
성자와 속인이 본래 하나인데(凡聖本來同一地)
다시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는단 말인가(更於何處覓圓通)

진각(眞覺) 국사 혜심(慧諶, 1178~1234)은 고려 무신정권 때 보조 국사 지눌의 보조선(普照禪)을 계승해 간화선을 주창하였다. 일찍이 과거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해 태학에 입학, 유학의 경전과 시학(詩學)을 공부한 수재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생무상을 느끼고 수선사(송광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지눌 스님을 찾아 불문에 귀의했다.

그는 역대 선사들의 삶의 역사와 선가의 공안(公案) 1125칙과 거기에 붙인 평론[拈]과 찬송[頌]한 방대한 양의 염송 시가를 정리하여 〈선문염송집〉 30권(1226년)을 편찬한 걸출한 불교학자이다. 중국의 송나라 때 선장(禪藏)인 〈전등록〉과 〈벽암록〉에 뒤지지 않는 한국선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저술이다.

당시 고려의 어려운 상황에서 방대한 선 서적을 편찬한 것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당시 최고의 실권자인 최우(崔瑀)의 후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큰 불사이다. 고려시대 승과시험 교재이자 현재 조계종단에서 승려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그의 저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염송 시가 정리 〈선문염송집〉 편찬
조계종단 승려교육 · 승과시험 교재로
지혜 · 자비 광명으로 살면 "불보살 삶"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禪詩集)인 〈무의자 시집〉을 쓴 시승(詩僧)으로, 그의 선시는 일반 시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기·승구에서 "불성의 신령스런 빛은 온 누리에 빛나고 무량한 그 공덕은 바로 이 몸 안에 있네"라고 하여, 부처가 되는 원래 씨알인 불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色蘊]과 정신작용[四蘊: 수상행식]을 이루고 있는 오온(五蘊: 몸·감수작용·상상작용·의지작용·지각작용) 속에서 작용하는 우리 중생의 마음[衆生心]인 것을 밝힌 것이다. 땡감이 홍시가 되듯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설파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몸과 마음 안에서 구하라는 설법이다.

전·결구에서 "성자와 속인이 본래 하나인데 다시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는단 말인가"라고 자신의 오도의 경지를 읊었다. 깨닫고 보면 범부와 성자가 똑같은 사람임을 안다. 성자는 알고 실천하는 자이고, 범부는 어둡고 방황하며 윤회한다. 어리석은 마음을 되돌려서 지혜를 밝혀 깨달음을 얻고, 잉어가 정진하여 등용문을 통과해 마침내 용이 되듯 중생이 부처가 된다.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부처가 도솔천 하늘나라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중생, 즉 사람이 부처라는 뜻이다. 불교는 절대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선가에서 깨달음의 공부는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보배창고의 문을 열어 찾아서 그것을 잘 쓰고 살면 부자가 된다. 누구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살면 불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혜심 선사는 설법하고 있다.

알고 보면 내 곁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이웃이 각자가 마음속에 보배구슬을 하나씩 품고 사는 대심(大心) 보살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AI로 되살린 독립운동 비구니 스님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2주에 걸쳐 게재했다.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기획은 첫 주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에 이어 이번 주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 40명, 봉려관·보각·상근·옥봉·장일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기획을 준비하며 새삼 알게 된 것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비구니 스님이 없다는 사실이다. 독립운동이 남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을텐데, 우리의 기억 속에 여성독립운동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게 현실이니 비구니 스님은 오죽할까.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소리없이 헌신하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여성의 항일운동은 물론 비구니 스님의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다행히도 최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역사 속 한국비구니〉를 발간하며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을 정리했지만 활동에 비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은 구술은 있지만 문헌자료가 없어서 묻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항일운동은 지하운동이고 비밀결사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은 주로 자금을 마련하고 포교를 방편으로 대중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참여했기에 더욱 그렇다.

항일운동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문헌기록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록의 부재가 결코 활동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의 명예나 사익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진정성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료를 찾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근현대 불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불법의 등불을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번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기획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